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 예술 생태계 살릴 것”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달빛동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당선 된 이승정 교수

한문연 설립 후 첫 선출직 당선 전남권 스토리 있으나 개발 못해 공모사업 지역별 섹터제 운영 공연예술사 국가자격증 등 도입

예술 유통, 국민 문화활동지원 등을 목표로 설립된 한문연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등 공연 사업을 비롯해 교육, 연구, 페스티벌 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전국 219개 문화예술회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산문화예술회관 등이 소속돼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을 돌아보며 실무자들을 만나 요구사항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모든 지역문화회관을 아우르며 한문연의 변화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이승정(55·사진) 한려대 교수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순천 출신인 이 교수는 지난 1996년 한문연이 설립된 이후 선출직으로서 처음으로 연합회 회장에 당선됐으며, 문화예술회관장 경력 없이 회장직에 오른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전남예총회장, 전국예총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비상임)로 활동 중이다.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과 공연

이 교수는 현재 한문연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주해비치페스티벌’을 꼽았다. 이 축제는 전국 문예회관 관계자와 예술단체가 모여 쇼케이스, 공연예술포럼 등을 열고 예술 작품들을 전국으로 유통, 문예회관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축제였으나, 저조한 운영기관 관계자 참석을, 예술인이 아닌 기관 지원에 편중된 예산 책정 등을 지적받으며 도마에 올랐다.

이 교수는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TF팀을 신설하고 직원, 예술인,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해결 방안을 밝혔다.

이 교수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소외 현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이 예술의 전당, 세



중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이 많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수도권 시민들은 원하는 문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반면, 지역에는 영화관조차 없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권의 경우 “김승욱, 조정래, 천경자 등 스토리는 있으나 예술가, 기획자, 예술단체가 부족해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모 사업을 지역별 섹터제로 운영하고, 각 지역 예술단체의 협업과 작품 유통을 이끌어 지역 예술의 생태계를 살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 도입할 제도로 ‘공연예술사(가칭) 국가전문자격증제’ 등을 내세웠다. 공연예술사 국가전문자격증제는 기존 문화예술교육사와 달리 교육뿐 아니라 공연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별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전체 문화예술회관의 60%를 공무원이 운영 중인데, 대체로 전문성이 부족해 순환보직으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다”며 “예술에 대한 이해, 행정 능력 등이 증명된 전문 인력인 공연예술사를 법제화하고, 그들을 고용해 문화예술회관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문화예술산업단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몇 차례 사용한 뒤 버려지곤 하는 의상, 조명 등 소품들을 재활용하고, 전국의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으며 해외로 수출도 가능한 예술인들의 쇼핑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홈페이지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만들어 문화예술회관 회원 단체 기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회원 단체간의 ‘소통’도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대구 작가들 참석 교류

아시아문화원 큐레이터 초청 강연을 들었다.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와 대구의 가장창작스튜디오, 대구예술발전소 입주작가들이 2019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등 달빛동맹으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

대구문화재단 가장창작스튜디오와 대구예술발전소 작가들이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최근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와 대구 작가들은 함께 2019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식과 전시를 관람하고, 이기모

이번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전시에 참여한 광주 작가는 임용현, 백나원, 작가수요일, 유지원, 김명우로 이들은 직접 대구 작가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이 공동 제작한 공공 미디어아트 작품 ‘미디어 서랍장’이 ‘2019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에 전시돼 호평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잔액 소진하고 선물 받으세요

31일까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 달 간 광주 지역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지자를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0원한 친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잔액을 소진하고 ‘잔액 0원’을 인증하는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단, 본인 충전금 소진, 10월 1일 이전 ‘잔액 0원’ 내역으로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잔

액 소진 후 카드승인문자 혹은 문화누리 홈페이지 잔액 확인 내역 등 ‘잔액 0원’ 인증 이미지를 ‘광주문화누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는 이메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직접방문 중 방법을 택해 필수정보 입력 후 제출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들에게는 다음달 10일 이내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8만원을 지원하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열린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



22일 공연을 갖는 ‘JS뮤지션스그룹’.

‘광주전남 문화주간’ 해동문화예술촌서 열려

다음달 3일까지 다양한 행사

광주전남 문화예술 교류행사와 상생협력 행사가 11월 3일까지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에서 펼쳐진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는 양 시도 문화예술 분야 상생을 위한 문화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양 시·도의 문화예술 분야 상생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청년작가 교류기획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예술인교류 음악

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광주·전남·경남이 함께하는 ‘영호남 명무명창전’은 개막 당일 영남의 무용과 호남의 소리를 융합한 전통공연으로 관심을 끌었으며 ‘광주전남 예술인교류 음악회’도 퓨전국악, 무용, 버스킹 등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 연고를 둔 청년작가들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청년작가 교류 기획전’(11월 3일까지)은 청년의 사유와 고민이 드러나는 작품을 전시한다. 참여작가는 김이슬, 정주은, 양수경, 권예솔, 윤성필, 차화영, 김지수, 박재향, 고민기, 오성현, 이지수 등 총 50명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명작 영화 OST 콘서트 ‘Music in Cinema’

재즈그룹 ‘JS뮤지션스그룹’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재즈 그룹 ‘JS뮤지션스그룹’이 2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명작 영화 OST 콘서트 Music in Cinema’를 공연한다.

JS뮤지션스그룹의 39번째 정기연주회로 기획된 이날 공연은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삽입곡들을 재즈 편곡된 버전으로 만나는 자리다.

이날은 영화 ‘패치 아담스’의 ‘Main Title’로 시작해 ‘타이타닉’의 ‘My Heart Will Go on’, ‘올드보이’의 ‘The

Last Waltz’, ‘코코’의 ‘기억해줘’ 등 10개 곡을 무대에 올린다.

2003년 창단한 JS뮤지션스그룹은 매해 2회의 정기연주회를 열고 재즈 음악을 바탕으로 국악·클래식 등 장르를 협연하는 등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단체다.

이날은 김성광이 총연출과 지휘를 맡고, 최수희가 편곡을 담당한다. 한수정·전사무열(베이스), 강윤숙·오세주(피아노), 정명훈·김민호(드럼), 황능희(보컬) 등이 출연한다. 소프라노 박성경, 무용수 배선주, ‘카프리지오 퍼커션 앙상블’ 등 29명의 객원 아티스트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R석 2만원, 일반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 BK21사업단, 오늘 세미나

전남대 BK21+ 지역기반 문화융합관광사업단(단장 강신겸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21일 오후 6시 전남대 용지관에서 하반기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오하이오 주립대 차지민 박사후연구원을 초청해 ‘문화콘텐츠로서의 추모박물관: 박물관의 새로운 기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차지민 연구원은 이날 강의를 통해 추

모박물관을 전시 공간이 아닌 문화콘텐츠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문화적·사회적 기능을 고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모박물관 역사보존과 교육적 역할은 물론 지역문화콘텐츠로서의 박물관 기능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학생과 교수는 물론 일반인까지 사전접수 후 참가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